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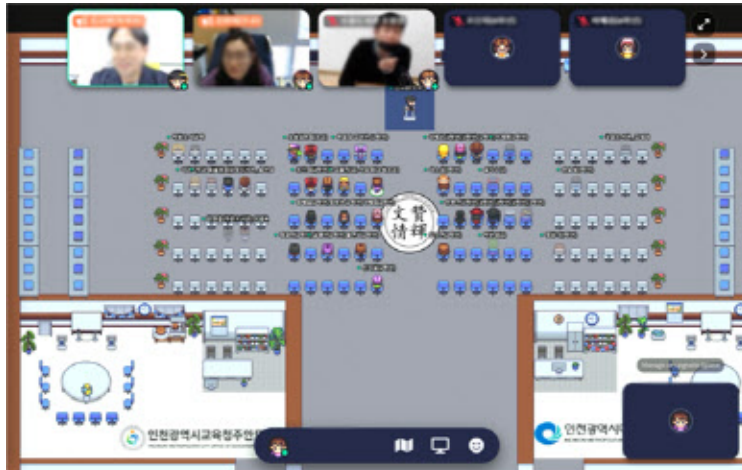
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

브릿지경제

인천대 문헌정보학과 메타버스 온라인 진로·취업 박람회 큰 호응

이춘만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1-11-17 17:02



인천대 문헌정보학과가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전공 진로,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. 인천대 제공

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하면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 세계, ‘메타버스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진로·취업 박람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.

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(게더타운)을 통해 전공 진로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이 전공 관련 도서관 및 산업체 실무자를 온라인에서 만나 개별 상담, 취업 전략 컨설팅까지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국립중앙도서관, 국회도서관, 수봉도서관, 주안도서관, 마전도서관의 국가도서관,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과 KISTI의 정부출연연구소, 퓨처누리, 올포원의 산업체까지 총 8개 전공 관련기관의 전문 멘토가 참여했다.

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특성을 100% 활용해 사회적 연결과 시·공간의 자유를 동시에 느끼며,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

재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조를 이룬 다음 사전에 신청한 기관 부스를 순회하며 해당 전문 멘토들로부터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취업전략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.

참여한 학생들은 “도서관, 연구소, 산업체의 전문 멘토로부터 현실적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,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”라며 전공 진로 및 취업박람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

문헌정보학과장 김규환 교수는 “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박람회를 고민하다가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재학생뿐만 아니라 참석한 전문 멘토들도 좋은 반응을 보여 향후에도 메타버스 방식으로 더 많은 행사를 운영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인천=이춘만 기자 lcm9504@viva100.com